하나님께서 깔아 놓으신 멍석

(창17:1~14)

1. 아브람이 구십구 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2.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3.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4.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5.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9.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10.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1.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깔아놓으신 멍석>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하나님께서 깔아놓으신 멍석'
유럽에는 예술분야의 공연과 관계해서 유명한 전문공연장들이 있습니다.
오페라하우스가 있고 오케스트라연주를 위한 공연장들이 있고 그리고 또 무용을 전문으로 올리는 극장이 있는데, 유럽 최고의 무용전문극장이 바로 프랑스 리옹에 있는 '메종드라당스'라고 하는 극장입니다. 우리나라말로하면 '무용의 집'이라고 해요.
여기에 2006년에 총감독을 맡고 있던 기 다르매 씨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기억할만한 한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나라에 김매자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창무회라는 판소리 악단이 있는데, 이 창무회에서 심청전을 유럽 최고의 무용전문극장인 메종드라당스의 무대에 올립니다.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심청전이 공연되었는데, 이렇게 유럽

최고의 무용전문극장에 올리게 된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 총감독 기 다르매 씨가 그 동안 아시아전통무용 중에서는 일본의 전통무용인 부토가 유럽인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었는데, 이제 이 부토에 대한 인기가 점점 식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메울 수 있는 아시아의 전통무용이 무엇이 있을까 찾다가, 판소리에 아주 큰 감명을 받고 심청전 판소리를 메종드라당스에 올리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놓고 기자들은 메종드라당스의 총감독 기 다르매 씨가 프랑스 리옹에 있는 최고의 전문극장에 우리나라 심청전을 위해서 멍석을 깔아주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멍석을 깔아주었다는 이야기의 비유적인 의미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노래든 춤이든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멍석을 깔아놓을 테니 멍석 위에 올라가서 공연을 해보라고 하듯이, 멍석은 우리나라 시골의 전통무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그 후손들에게 멍석을 깔아놓으십니다.
“내가 내 앞에 멍석을 깔아놓을 테니 내 앞에서 행동하고 말하고 너희가 하고 싶은 것을 해봐라”라는 의미로 멍석을 깔아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람의 후손이 누구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멍석 위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아브람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인류를 이 땅위에 태어나게 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신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멍석을 깔아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멍석 위에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멍석 위에서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이 세상이 깔아놓은 멍석 위에서 행동하고 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브람 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멍석을 깔아 놓으신 겁니다.
메종드라당스의 총감독 기 다르매가 창무회에 심청전을 마음대로 해보라고 멍석을 깔아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멍석을 깔아놓으셨고, 그 멍석을 깔아놓으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말하며 사는 자들이 아브람과 그의 후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제 아브람 집안에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사래를 주인공으로 한 일련의 사건들을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스마엘이 태어난 뒤로 13년 만에 일어난 일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식이 뚝 끊겼다가 13년 만에 나타나셨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13년 동안 아브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았겠지요.

그러한 삶을 살면서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3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셨느냐?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 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거듭거듭 자손에 대한 언약과 땅에 대한 언약을 재확인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12-14절에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팔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라고 이렇게까지 엄중한 의미를 두시고 할례를 행할 것을 명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이 말씀과 할례언약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하신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는 아브람이 원한 적도 없는 약속을 하나님이 계속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을 주신대로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는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아브람이 복의 근원이 되는 공생애가 시작되는 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3년 만에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에 하란을 떠난 지 2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24년 안에 13년도 포함되어 있고 그 기간 동안에 뭘 했느냐?
아브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세상을 등졌습니다. 세상에 마음이 뺏기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면서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이 언제나 마음에서 1등의 관심사가 되기를 원하면서 세상을 폐허로 놔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벧엘을 향하여 여호와를 부르는 삶을 살고, 제단을 쌓으면서 세상에 이끌려가는 자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제단에 제물로 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친분의 두터움을 쌓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점점 친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브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데이트를 하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원하던 모든 바램을 따라서 점점 친해져서 이제는 그 친분의 두터움을 근거로 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아브람의 공생애를 살게 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 공생애를 시작하는 아브람에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요1:42절에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시몬의 이름을 바꿔 주신 것처럼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주신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는 것과 할례의 언약입니다.

그러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완전하라’
이 이야기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을 때에 쓰는 말입니다.
도덕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제시된 어떤 윤리적인 기준에 맞는 생활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 이전의 시대입니다.
완전하라는 이야기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흠이 없이 행하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잘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에 흠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완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이게 바로 이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멍석을 깔아주시는 겁니다. 내 앞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무대 위에 올라가서 연극을 하거나 공연하는 것을 퍼포먼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 앞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멍석을 깔아줄 테니까 언제나 너희는 내가 깔아놓은 멍석 위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구체적으로 하면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정과 직장에 멍석을 깔아놓으십니다.

멍석을 깔아 놓으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내가 자식을 대면하고 있고, 배우자를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배우자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자식 앞에서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멍석을 깔아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대면하고 있어도, 배우자를 대면하고 있어도 실제로 내가 의식하면서 말하고 행동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 내 행동과 말을 바라보고 있는 관객이 누구냐?
자식도 배우자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사장님을 대한다면 사장님을 대면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장님을 대면하고 있는 시간에 오셔서 멍석을 깔아놓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 의식하면서 말과 행동을 해야 될 무대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이 관객이신 그런 무대로 바뀌어버린다는 얘깁니다.
'내가 사장님 앞에서 뭐라고 할까? 사장님 앞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좋아할까?'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멍석을 쫙 깔아놓으시면서 사장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서 행하라고 하십니다.
내 인생의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향하고 비전을 향하고 날마다 바라보면 꿈 앞에서 행하고 비전 앞에서 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고 하나님께서 멍석을 깔아버리십니다. 이제 내가 관객이니까 나를 의식해서 말하고 행동해라. 너의 꿈과 비전을 의식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계획하지 말고, 내가 멍석을 깔았고 내가 관객이니까 나를 의식해서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속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람이 고향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날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보여서 떠났다고 합니다.
마음에 영광의 하나님이 보였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마음에서 1등을 했다는 이야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1등 했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음을 끄는 많은 관심거리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관심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마음의 첫 번째이자 1등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이 상태는 사실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은 이제까지 계속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뭘 새삼스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까요?
이제 아브라함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복의 근원으로서의 명실상부한 현실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제 내년이면 이삭이 태어날 거예요. 진짜 아브라함의 몸에서 언약의 자손인 이삭이 태어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의 근원되는 실제의 일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내 앞에서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될 아브라함 후손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담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아담에게서 태어날 모든 인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계의 가훈이 되는 것이에요.
그 가훈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기준에서 완전할 수 있느냐?
내 앞에서 행하면 된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례는 무슨 관계냐?
이 할례라는 것이 그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람은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마음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래를 데리고 다닐 때에도 사래 앞에서 행동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했습니다.
땅을 분배할 때에도 롯과 땅 앞에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온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마음가짐이 전염병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집안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야 됩니다.

보세요.
문제는 어떻게 무슨 수로 아브라함에게서처럼 하나님이 1등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불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대면하며 살아야 되는 모든 대상들은 눈에 보이고, 손을 뻗으면 만져집니다. 그리고 귀로도 들리고 느낌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름 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 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만 있는 그 분을 어떻게 오감관이 있는 육체를 입고 사는 우리들이, 육체를 통해 만나는 대상보다 더 먼저 하나님을 의식해서 내가 육체로 만나는 그 어떤 대상과의 시간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행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퍼뜨리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의 살았던 마음가짐과 삶의 방식이 그대로 옮겨지도록 하는 거니까 복의 근원이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살 속에 언약을 새겼다고 하시는 것이 할례라는 것입니다.
할례라는 육체의 표징을 갖게 됨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과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멍석을 깔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관객이신 무대 위에 내가 서서 생각하는 것이고, 말하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할례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는 뭘 뜻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어떤 상황을 마주대하게 될 때에는 정말 다양한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과제와 다양한 문제를 놓고 마주대하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멍석을 까시는데 우리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 관계로 거래처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이 거래처 사람의 마음을 잘 구슬리고 우리 상품이 아주 좋다는 것을 어필하고 설득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거래처 상대자를 상대하지 말고 내가 멍석을 깔아놓을 테니까 판소리 공연하듯이 나를 의식하고 행동해 보라고 하십니다.

왜 판소리 공연하듯이 해야 하느냐?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것을 위해 생각하려고 할 때에 죄인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판소리를 공연하려면 얼마나 부자연스럽게 나를 치켜세워야 됩니까? 나 자신이 흥분이 되어야 하잖아요. 인위적인 작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자연스러움이라는 것은 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육체로 만나는 것에 먼저 대상성을 인정해버립니다.
'저 사람이 먼저이고, 저 사물이 먼저다. 지금 내가 몸으로 만나고 있는 이 비즈니스 상황이 먼저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아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즈니스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은 안 되는 비즈니스 앞에서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앞에서 행할 때 하나의 행동으로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런데 '전능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기술, 예술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대면하는 상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때에 전문성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문가에게 가지 않아도 되나? 내가 설득하지 않아도 되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예체능, 기술, 사업, 의학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다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므로 할례를 받았으면 그 할례 받았음에서부터 언제든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주어진 것은 이름뿐이지만 내가 할례를 행하게 할 테니까, 그 할례를 행하게 된 몸의 표징을 보면서 언제나 날 의식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이 세상일에 대해서 세상일을 신경 써야겠다는 걱정하지 말고 그냥 마음 놓고 나만 의식하고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빌라도는 자기와 상관이 없다고 하십니다. 빌라도와 대면해서 재판을 받으시는데 어떻게 상관이 없겠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멍석을 깔아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 앞에서 행하시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베드로와 요한도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 전하지 말라고 하는데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멍석을 깔아놓으시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합니다.

이 할례를 포함해서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가장 탁월한 자가 다윗입니다. 다윗의 이야기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 이야기.
골리앗에게 나갈 때에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삼상 17:26절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합니다.
‘할례 받지 못한 자’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자기는 할례 받은 자라는 것이죠. 할례 받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전쟁터에 멍석을 깔아두셨다는 겁니다. 소년 다윗에게 멍석을 깔아놓으신 겁니다. 이 다윗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관객으로 보고 골리앗을 보니까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느냐?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전쟁에 나가겠다고 하니까 불렀어요.
불러서 삼상 17:33절에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34-35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물어 가면 /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죽였나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을 칠 때에도 다윗은 곰과 사자를 대면하면서도 하나님을 먼저 의식한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힘이 있어서 그 어린 소년이 사자와 곰의 입을 찢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할례 받았으니까.
할례 받았음을 기억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하느냐?
정 그렇다면, 37절에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합니다.
자기도 할례 받았는데 왜 다윗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까?
자기도 할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할례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일 먼저 기억하게 하는 표

징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골리앗이 제일 먼저 대면하는 상대가 되어서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리지만 자기가 할례 받았음을 기억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기억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깔아놓은 멍석 위에서 싸우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소년 다윗과 할례 받지 못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골리앗이 싸우니 게임이 되겠습니까?
사울 왕에게는 그 판이 완전히 골리앗이 깔아둔 판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이죠.
사장님이 불러서 네가 할 수 있는 일, 네가 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보라고 할 때에 사장님이 벌려놓은 판이니까 벌벌 떠는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깔아놓은 멍석 위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계시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전능한 것을 자랑하려고 계시하셨겠습니까?
당신이 전능하시다는 계시를 하신 이유는, 그 전능이 너에게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나의 전능이 너에게로 가니까 내가 깔아놓은 판에서 한 번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세상이 깔아놓은 판에서 사는 것입니다.
'직장 구하기가 어렵다.'
세상이 깔아놓은 판입니다. 그 판에서 직장을 구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데, 이 판소리 같은 나의 직장구하기의 공연이 제대로 먹히지를 않아요. 인생이 어렵지요.
왜 그렇게 사느냐는 겁니다.
직장이라는 상대를 대면해서 거기에서부터 깔려진 멍석에서 행동하지 말고, 직장문제와 대면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깔아놓으신 멍석 위에서 계획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 행위 대신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인 다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우리 마음이 우리 몸 때문에 하나님보다 먼저 받아들여서 이 세상이 깔아놓은 멍석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우리들을 막아주시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사건과 할례의 의미를 종합해서 골로새서 2: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에 우리 몸으로 만나게 되어서 세상이 깔아 놓은 멍석 위로 우리를 잡아 끌어 놓으려는 모든 대상들을 잘라버리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멍석 위로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멍석 위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서 필요한대로 모든 것이 다 공급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위에서 살라는 이야기예요.

이제부터 가장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언제나 마음속에서 할례 대신에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내 마음이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대해 죽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육적 몸을 잘라내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깔아놓으신 멍석 위로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그 멍석 위에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서처럼 공생애가 그 열매를 맺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고, 태승철이 태승처-얼이 되는 것처럼, 이철수가 이철수-우가 되는 것처럼.
공생애의 삶이 하나님의 깔아놓으신 멍석 위에 올라갈 때에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깔아놓으신 멍석 위에서 펼쳐지는 판소리 공연같이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어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의 근원이 되는 공생애가 시작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